

본 스크립트는 KERIS에서 운영하는 영어스크립트제작봉사단(OES)의 영어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번역자 : 김경진(숙명여대), 허윤지(홍익대 대학원), 김은총(한국외대) 박선롤(금강대)

---

## SDF2014

\*연사: 다니엘 대 김 / Daniel Dae Kim. 장태유 / Jang, Tae Yoo. 김영현 / Kim, Young Hyun. 박상연 / Park, Sang Yeon.

\*소속/직함: 프로듀서 및 배우 / Producer and actor, 3AD.

‘별에서 온 그대’ 감독 / Director of ‘My Love from the Star’,

SBS. ‘대장금’ 및 ‘뿌리깊은 나무’ 작가 / Writer of ‘Dae Jang Geum’ and ‘Deep Rooted Tree’.

‘뿌리깊은 나무’ 및 ‘고지전’ 작가 / Writer of ‘Deep Rooted Tree’ and ‘The Front Line’.

\*연설: "한류드라마, 세계에 통하다."

"Korean Dramas, connecting with the World"

---

(Time Code 00:24:20)

김환: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20 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The popular Korean TV series, ‘My Love from the Star’,  
which aired on television a little while ago  
has gained a total of 2 billion views on the Chinese Youtube.**

텔레비전에 아직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 억 뷰라는 동영상을 중국인들이 봤습니다.

**It has not yet been aired on Chinese television, however,  
the Chinese have already watched it on the internet 2 billion times.**

중국뿐만이 아니죠, 이제 제 2의 한류열풍을 정말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The Korean wave is now at its height for the second time,  
not only in China but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통한 한류 드라마, 그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how K-dramas gained its international success  
with our four guests.**

먼저 별에서 온 그대 프로듀서였던 장태유 감독,  
대장금의 김영현 작가, 영화 고지전의 박상연 작가,  
이 두 작가는 뿌리깊은 나무와 선덕여왕을 공동집필하기도 했습니다.

**Firstly we have Jang Tae-yoo, the producer of ‘My Love from the Star’,  
Kim Young-hyun, the screenwriter of ‘Dae Jang Geum’,  
and Park Sang-yeon, the screenwriter of the movie ‘The Front Line’.  
Screenwriters Kim and Park have also collaborated on working on  
the scripts for both ‘Deep Rooted Tree’ and ‘Queen Seondeok’.**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현지와의 다시 제작하는 일에 나선  
제작가 겸 할리웃 배우 대니얼 대 김까지 네 분이 한번에 뭉쳤습니다.

**We also have Hollywood actor and producer Daniel Dae Kim here with us today,  
who is currently working on co-productions of K-dramas in Hollywood.**

한류 드라마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We will talk about some of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a K-drama to succeed internationally.  
Let’s meet them right now.  
Please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올해 서울디지털포럼에서 가장 많은 연사분들이 한 자리에 나오시는 세션입니다.  
일단, 각자 인사를 좀 해주시죠.

**This session holds the largest number of speakers present at this year’s SDF.  
Now, would the speakers please introduce yourselves to the audience?**

대니얼 대 김:

안녕하세요, I am Daniel Dae Kim.

I am an actor, you may have seen me on Lost.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대 김입니다

저는 배우고요, “로스트”에서 저를 보신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I am currently on a show called Hawaii Five-0,

I am here with my brand new company 3AD we are looking to produce  
television and film both in America and do co-productions with Korea.

Thank you for having me.

저는 현재 “하와이 파이브-오”라는 드라마에 출연 중 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새로운 회사인 3AD 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 영화와 드라마의 프로덕션과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코프로듀싱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유: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방영한 별에서 온 그대를 연출했던 SBS 의 장태유 입니다.  
**Hello, I'm Producer Jang Tae-yoo, I produced 'My Love from the Star' which aired on television a while ago.**

김영현:

안녕하세요 전 대장금과 뿌리 깊은 나무를 썼던 작가 김영현입니다.  
**Hello, I'm Kim Young-hyun and I wrote the scripts for 'Dae Jang Geum' and 'Deep Rooted Tree'.**

박상연:

안녕하세요 전 김작가님과 함께 뿌리 깊은 나무를 썼고  
그리고 고지전, 영화 드라마를 쓰고 있는 작가 박상연입니다.  
**Hello, I'm Park Sang-yeon, I'm also a screenwriter and I worked on 'Deep Rooted Tree' with writer Kim, and I also worked on the movie script of 'The Front Line'.**

김환:

이 네분이 왜 한자리에 모였나... 궁금한데요,  
장 PD 님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In case anyone's wondering why the four of them are present here today, Producer Jang, would you please explain to us why you're here?**

장태유:

케이팝에 이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요즘 제 3 의 한류를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작자의 입장, 연출자의 입장, 작가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이유로 모인 것 같습니다.  
**Along with K-pop, Korean drama has gained immense popularity world-wide. I believe we are here today to talk about its productions, and to look at it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from those of the screen writers to the producers of these popular Korean dramas.**

김환:

사실 저희들도 드라마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느낌으로만 알지 직접적으로 얘기 듣는 시간은 없었거든요, 오늘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o be honest, we have never had a chance to hear about the mise-en-scène of film productions directly from the producers until today. We could only make guesses about it, so please feel free to tell us and explain to us how everything works.**

세분은 또 한 작품을 같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니얼 대 김은 빼구요.  
세분만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작품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I also heard that the three of you, except for Daniel Dae Kim,  
have worked on the same TV series at the same time.  
Which TV series was that?**

장태유:

뿌리깊은 나무였죠.

**It was 'Deep Rooted Tree'.**

김환: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Okay, let's all watch a short clip of 'Deep Rooted Tree' first.**

(Time Code 00:27:29)

(영상)뿌리깊은 나무

(Video) Deep Rooted Tree

나랏말싸미 등귀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져 훌빼이셔도

마침내 제 뜨들 시러퍼디 몬할 노미 하니라

내 이랄위하야 어옛비너겨 새로 스물 여덟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수비니겨 날로 쑤메 뻥한키 하고져 할 따라미니라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일러 말하고 싶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아

내 이를 위하여 백성을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나날이 씬에 있어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The letters of this country being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the outcries of the illiterate, unlearned people pass unheard  
with so many people with their opinions ignored,**

**by them I am saddened, and for them I have made 28 letters new  
and may every person learn them easily and write them daily to ease their burden.**

만세!

**Hurray!**

김환: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뿌리깊은 나무였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드라마 환경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또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세분의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This was the drama, 'Deep Rooted Tree'.**

**How about a round of applause?**

**I've heard many accounts that say that the work involved  
in making a drama is very fast-paced and demanding.**

**For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ould be harmony between team members -  
may I ask about the harmony between the three of you  
when you worked on that drama?**

장태유: 전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엔 이견도 있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두 작가님들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나중에는 척하면 척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연출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는 새처럼 감독과 작가의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Well, for me it was great.**

**There was a difference of opinion at first,**

**but these two writers became more valuable after each episode.**

**Afterwards, the flow was so smooth that it was like our minds were one.**

**It seems that, like how birds cannot fly with only one wing,  
proper directing is possible only when the harmony between  
the director and the writers work smoothly.**

김환: 호흡이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두 작가님들은 어떠셨는지?

**And how about the two writers who can't but say that the harmony was perfect?**

박상연: 아니 근데 진짜 정말로 호흡이 좋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방송을 VCR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드라마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협업의 작업이잖아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력이 또 노력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시너지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뿌리깊은나무 팀은 단언컨대 최고의 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Well, but the harmony really was great.**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I've seen it,  
and the VCR reminds me of the work we've done.**

**Making a drama is a sizable process of cooperation.**

**Professionals from all fields gather together to do their best,  
and their collective efforts in synergy result in more than the total of their efforts.**

**On that note, I think that the 'Deep Rooted Tree' team was really, truly the best.**

김환: 드라마를 하고 있는 네 분과의 대화가 이제 조금씩 깊어지게끔, 또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처음에 드라마를 시작하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직업이고 환경이다 보니까 왜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됐을까 이 힘든 직업을, 그런 생각이 한편으론 들거든요. 먼저 다니엘씨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로스트에 나오셨습니다, 김윤진씨 남편 역으로. 한국 드라마는 나오시지 않으셨었죠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헐리웃 드라마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The four of you all work in drama, and now it seems that  
our conversation should delve a bit further into more serious waters.**

**I would like to ask about how all of you first got into drama –  
neither the job itself nor the infrastructure is easy,  
and that leads me to be curious about how and why you chose drama,  
this taxing occupation.**

**First, Daniel, you starred in a drama also famous in South Korea,  
'LOST' as the husband of Kim Yunjin.**

**You haven't been in any Korean dramas, right?**

**I'd like to start off by asking how you came to work on a Hollywood drama.**

대니얼: Well, the way I started was I went to college and I was going to study political science. I ended up taking a lot of my major requirements very early so I could take acting as an elective course. So once I started acting I liked it so much that I kept going and then I added a major in college and that's how I started my career. I moved to New York and did Shakespeare for a while at a classical theatre and then I decided to continue my education and got my master's degree at NYU in acting. And then after that, we moved out to Hollywood. So you know I had a little boy and my wife and I decided we needed to feed it so we decided to move to LA and I started working in TV and film.

저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르게 전공필수과목을 대부분 들어서

선택과목으로 연기를 선택했구요

그렇게 연기를 시작했고

정말 좋아서 계속 하다보니

정치외교학과 함께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뉴욕으로 이사한 뒤 얼마간은 전용극장에서

셰익스피어 연극을 하다가, 학업을 잇기로 결정하고

뉴욕대에서 연기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할리우드로 이사를 갔죠

그 때 아들이 어렸는데

아내와 같이 상의해서 아들 입에 풀칠은 해주기로

결심하고 곧 LA로 이사를 갔고

TV와 영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환: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대니얼 대킴은 연기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at is the back story.**

**I suspect all of you are interested to hear how Daniel Dae Kim acted?**

**Let's see the video.**

(Time Code 00:31:53)

(대니얼소개영상)

대니얼: **It's never easy to watch yourself.**

자기 연기를 보는 것이 참 민망하네요

김환: 굉장히 과감한 액션을 많이 선보여주셔서 정말 멋있습니다. 그럼, 세분의 대답도 들어볼게요. 세분은 또 드라마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You are really a cool action star.**

**Now, I want to listen to you three guys' answers.**

**What caused you to make dramas?**

장태유: 저는 대학교 때 디자인을 전공해서 원래 광고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IMF로 나라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마침 형님의 권유로 방송국 시험공부를 하게 됐고, 운 좋게 입사를 하게 된 이후에, 예능, 드라마, 교양 중에서 드라마를 선택해서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먼저 말씀 드린 것처럼 매체에 상관없이 영화던 광고던 드라마던 상관없이 어찌됐던 저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걸 좋아합니다.

**I majored in design in college, so at first I wanted to direct advertisements.**

**But at that time Korea suffered from IMF,**

**And due to my brother's suggestion, I studied for the exam to enter the broadcasting station.**

**After passing the exam fortunately, I chose dramas among entertainments, dramas, and cultural programs.**

**Since then, I have kept working on dramas.**

**As I told you before, I like making videos which have Story-telling elements, regardless of what medium.**

김환: 장태유 PD님의 형이 이제 저희 SBS에서 대박 PD로, 두분이서 대박 PD 형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형의 권유로 하게 되셨고, 또 두분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Producer Chang and his older brother are well known for making hit programs.**



**So, you started making dramas due to your brother's advice,  
and what about you?**

김영현: 저 같은 경우도 대학전공이 방송하고 전혀 관계 없는걸 나왔고 또 일 이년 동안 취업준비생으로 있었거든요. 백수로도 오래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냥 잡지사에 취업을 했다가 그게 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학생들처럼 이런저런 강좌들 기웃거리다가 방송강좌 하나를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방송작가란 직업이 있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처음 취업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제서야 아 내가 옛날에 영화하고 드라마 같은걸 굉장히 좋아했었지 그러면서 좀 늦게 드라마 작가가 됐습니다.

**My major in college has nothing to do with broadcasting,  
and I was looking for a job for one or two years  
after graduation. At first, I worked at magazine company,  
but I found hard to have an interest in it.  
Like many students seeking jobs, I tried to listen to lectures  
this and that, and I took one lecture about broadcasting.  
That was the first time I knew about the writer for TV programs.  
Afterwards, I started working as a writer for entertainments.  
Working as a writer, I realized my huge interest in  
movies and dramas. I became a TV drama writer a bit late.**

박상연: 저는 두분과는 좀 달라요. 저는 영화와 소설을 쓰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김작가님이 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Tv 드라마 써보자고 설득했죠. 그래서 저는 그럼 한번만 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어느덧 7년이 됐고 현재 6작품째같이 하게 됐습니다.

**I have a quite different story with them.  
I was writing movie scripts and novels,  
and the writer Kim here persuaded me  
for a long time to write TV dramas together.  
I tried writing dramas just for the experience,  
But it has passed 7 years and now Kim and I  
have already written six dramas together.**

김환: 당연히 돈이 조금 되는 것도 있었겠죠.  
**Of course, its profitability affects you, doesn't it?**

박상연: 하 그 부분만 아니었다면..  
**Yes, of course.**

김영현: 너무 옆에서 놀고 있는게 조금 꼴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든 끌어들이었습니다.  
**I made him join me in writing because  
I didn't like to see him idle his time away.**

김환: 어쨌든 그 끌어들이는 게 지금의 완벽한 두 작가님을 만들어주셨고, 또 케이피앤쇼란 회사를 설립해서 한국에 크리에이팅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또 제 2 의 한류작가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힘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Anyway, co-writing turned out a huge success.  
I heard the news that you established KP&Show,  
and tried hard to settle creating system in Korea  
and foster younger writers who lead Hallyu in the future.  
Could you give me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it?**

김영현: 처음에 만들게 된 거는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아이디어 낸 걸 상연씨가 디벨로핑시키기도 하고 상연씨 아이디어를 제가 더 개발해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짜릿하게 느껴졌어요. 그거를 좀더 확대해서 저희 둘만의 시스템 뿐 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보조작가들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인 크리에이팅 시스템을 갖춰 보고자 하는 의도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Working with Sangyeon, I found it interesting to share and develop ideas with him,  
So I wanted to develop this to the systematic creating system  
where assistant writers participate in together.  
This is why we established the company.**

박상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드라마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이미 기획된 아이템을 픽업해서 제작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일단은 집필작가를 선정하고 그 집필작가를 멘토링하고, 각색하고, 감수하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시스턴트라이터들 중 오랫동안 같이 해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성장하게 되면 집필작가로 선정이 되어 작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To be more specific, what we do is to develop new drama items, or to pick up  
the existing items and make them produced and scheduled.  
First, we select writers, and give mentoring to them.  
Dramatizing and editing their writings are also our jobs.  
We have a pool of assistant writers who have worked with us for a long time.  
After letting them build a lot of experiences, we choose some of them as writers.  
Then, they start working as formal drama writers.  
We are making this kind of system.**

장태유: 실제로 그런 성공사례가 있나요?  
**Do you have success cases of the system?**

박상연: 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세 작품 했었어요. KBS 최강칠우라는 작품 했었고요, MBC 에서 로열패밀리라는 작품을 저희 시스템 안에서 크리에이팅했던거구요, 최근에 이제 SBS 에서 청담동엘리스라는 작품을 해서 지금 그 세 작가분 모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I really want to call it success.  
Three dramas were created by this system.  
There are KBS Mighty Chilwoo, MBC Royal Family,  
and the most recent one, SBS Cheongdam-dong Alice.**

**Three writers of these dramas are now busy working in the field.**

(Time Code 00:37:20))

김환: 좋은 뿌리를 내리셨군요.

**You've rooted an excellent system.**

대니얼 씨도 배우가 아닌 제작자로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Daniel, you also participated here as a producer, rather than an actor.**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Would you tell us in detail what you've done as a director?**

대니얼: Yes, I am still acting actively.

네, 제작자로서 일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배우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 am about to start my 5<sup>th</sup> season of Hawaii Five-0 and I will be shooting a movie next month in the US.

곧 드라마 '하와이 파이브 오 5'의 다섯 번째 시즌과

미국에서 다음 달에 새 영화 촬영을 시작합니다

But you know one thing that's nice about being a producer is I am able to take creative control of a project from the very beginning.

그러나 제작자로서 좋은 점 중 하나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부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You know, when you are an actor, no matter how good the project, you are always still an employee of a company and you can be creative within the role that you are given.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우일 때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좋은 간에

항상 피고용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내에서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죠

But what's nice about producing is that if you find a nice story, if you find an interesting life story, if you find a series that you would like from another country, you can bring it, you can create it and cook it from scratch.

그러나 프로듀서가 됨으로써 좋은 점은  
좋은 이야기나, 흥미로운 인생 이야기 또는  
외국의 어느 흥미로운 시리즈를 찾았을 때  
가져와서 처음부터 다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작자의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And that's very appealing to me.**

김환: 현재 한국은 여러 어려운 제작 환경이 있기도 한데 할리우드는 좀 다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Presently, Korea's drama producing environment is quite tough,  
I assume Hollywood might be a little bit different.**

제작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는데 한국 드라마가 어쨌든 한류열풍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 2 의 한류열풍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있고요.

**But Korean drama has a big role in the Korean wave  
and now, it's the second era of Korean wave.**

한국 드라마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s a producer, what do you think makes  
Korean drama attractive to the audience?**

대니얼: Well, I think there are so many.

한국 드라마의 강점은 하나만 꼽기엔 너무 많습니다

First of all, it starts with personnel.

우선 한국 드라마는 제작진이 우수합니다

You have distinguished writers and directors like yourselves, they produce very high level quality and they do so under some very difficult condition sometimes.

여기 계신 세 분 같이

한국에는 우수한 작가와 감독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악조건 속에서도 우수한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But I think beyond that there is a storytelling style that kind of shows the depth of a character that not a lot of television around the world has.

그러나 이것을 넘어 스토리텔링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다른 드라마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깊이 있는 등장인물'입니다

I don't think anyone does tragedy or melodrama as good as Koreans do. I am not sure whether that has something to do culturally with the idea of Han in the culture, or whether it's just exploring a character very deeply and fully but that is something that even I think any audience around the world can relate to if you can tell a good story and emphathize with the characters, it's something that you are going to want to keep watching.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만큼

비극이나 멜로드라마를 잘 만드는 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인 '한'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또는 단순히 인물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어느 시청자라도

훌륭한 스토리를 보면서

인물들에게 공감이 된다면

계속해서 드라마를 볼 것입니다

So I think that's one of the main reasons.

그래서 이것이 한류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I also think that in keeping with the theme of the forum, 'access', Korea is so technologically advanced when it comes to broadband internet that I think they still have the fastest average internet

speed per user in any country and so as a result Korean dramas are able to travel in a way that other dramas are not able to and people can watch them anywhere and everywhere whether it's in this country or in America and I think that's a big reason why they've become so popular so quickly.

또한, 이번 서울디지털포럼의 주제인 '접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정말 발전해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도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국만큼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국의 드라마는 할 수 없지만,

한국 드라마는 빠르게 퍼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관계 없어요

그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빨리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환: 할리우드에서 바라보는 한국 드라마의 강점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So far, Daniel talked about Korean drama's strong points from a Hollywood's producer's point of view.**

두 작가님은 한국 드라마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Now, I want to ask a question to the two writers.**

**Can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e strong points of Korean Dramas are?**

김영현: 전 우선 배우의 우수성이라고 생각해요. 연기 면이나 스타성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First of all, I think it's the high quality of actors.**

**They are great in terms of both acting and popularity.**

작가의 입장에서 스토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저도 이제 대장금 성공 이후에 외부 기자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아서 생각해봤는데, 창작자로 있는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일본 만화와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라고 생각하거든요.

**As a writer, I've been asked and thought a lot about the question**

**you've just asked after the success of Dae Jang Geum, and**

**I think it's due to the influence of Japanese comics and Hollywood movies.**

**Current Korean writers and directors are people who've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m in their youth.**

일본 만화는 캐릭터물에 강점이 있고 헐리우드 영화는 당시에 굉장히 파워풀한 스토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Japanese comics have much emphasis on the characters, and at the time Hollywood movies emphasized powerful storylines.**

그 두 가지를 스스로 융합시켜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강점이 개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I think Korean writers and directors have come to collaborate and improve those strong points.**

거기에 더하면 한국 전통 스토리의 강점은 '통쾌함'이거든요.

**In addition, the traditional Korean story provides 'great satisfaction'**

그 통쾌함이 한국스토리에는 대부분에, 멜로에도 들어있고 성공스토리에도 들어있고 그 통쾌함이 항상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It usually underlies in Korean melodrama, in a success story, and so on.**

그 세가지 강점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Korean drama tries to maintain those three strong points: going deeply to the characters, powerful storylines and great satisfaction**

그리고 요즘 시청자들이 무섭잖아요, 한국 시청자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전해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Also, Korean writers and directors should appeal to those tricky Korean audiences.**

**I assume that drove Korean drama's development so far.**

김환:

그리고 또 박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d what do you think, writer Park?**

박상연:

너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To be honest, she already said almost everything I wanted to say.**

전 한국 드라마와 다른 나라 드라마 사이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dramas.**

드라마는 저는 이제 작가적인 입장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From a writer's point of view, I think there are two types of dramas.**

감정 이입하는 드라마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좀 구경하듯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One that makes viewers empathize, and another that makes them observe.**

물론 드라마는 두 가지 습성이 다 있는데 어느 한쪽이 더 강조되는 면이 있는 거죠.

**Of course, all dramas have these two characteristics,  
but one usually dominates the other.**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했던 감정이입하는 드라마는 관객이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주인공의 승리에 같이 기뻐하고 주인공의 패배에 슬퍼하고 그쪽이 두려움을 느끼면 같이 공포를 느끼고 그래서 주인공 응원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The former one (which makes viewers sympathize) makes viewers think as if they are the main characters. So that viewers feel the same as those of the characters. Viewers are happy when they win, sad when they are defeated, get scared when they are scared, and so on.**

이것은 하나의 드라마 작법입니다.

**It's one of many drama writing styles.**



다른 하나는 거리를 두어서 인간 군상들을 보는 방식입니다.

**And the other one makes viewers to watch from a distance.**

이것은 구경하는 것입니다.

**This makes viewers just observe.**

전 FC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 두 팀 다 팬은 아니지만 보면서 즐깁니다.

**I am neither a FC Barcelona or Real Madrid fan, but I enjoy watching them play.**

이렇게 거리를 두고 구경하듯이 보는 드라마를 또 하나의 종류라고 봐요.

**It is another, different type of drama.**

여기 대니얼씨가 나오는 로스트라던가 제가 요즘 잘 보고 있는 하우스오브카드를 보면 누구 하나를 응원하면서 보지는 않습니다.

**Generally, viewers don't show empathy when they watch dramas such as 'Lost' (Daniel starred in this drama) or 'House of Cards'.**

단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한 인간 군상들의 서로 얽힌 이야기를 보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Viewers just observe characters who face an unusual, specific situation.**

저는 사실 이런 쪽의 드라마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감정이입하는 드라마, 어떤 주인공을 응원하면서 따라가는 드라마를 시청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작법에 작가들이 능수능란해진 것 같습니다.

**Actually, I like the second type of drama, but as Korean viewers love the former type, which makes writers to be more competent in that style.**

전자, 감정이입하는 드라마에서 관객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대리만족이거든요.

**In former type, viewers want to feel vicarious satisfaction.**

정말 신기한 일인거죠, 어떻게 보면.

**In some ways, it is really surprising.**

현실에서 난 정말 별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행복을 보면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In reality, viewers may not face any special situation or are not happy, but they can feel the other way when they watch the main characters' happiness.**

그런데 지금 한류라는 것은 대리만족하는 드라마의 특성이 아시아에 보편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orean wave shows us that most of Asian viewers want to feel vicarious satisfaction through the drama.**

김환: 한국드라마의 장점인 스토리텔링이랄지, 그리고 시청자와의 호흡, 그리고 또 배우의 연기성,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프로듀서로서 한국 드라마에의 장점은요?

**So far, you have talked about Korean drama's strong points such as storytelling, attracting viewers and good actors.**

**As a producer, what would you call the advantage as a producer?**

김영현: 영상미가 굉장히 세련되었죠. 지금 뭐 거의 공인되었죠. 여러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세련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Most of people agree that Korean drama has beautiful images.**

**I think the screen is beautiful overall.**

김환: 과연 그럼 얼마나 세련됐는지, 장PD가 연출한 드라마를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류열풍을 주도한 대표 드라마죠. 별에서 온 그대 하이라이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Then, let's take a look at the beautiful scenes from Korean drama 'Love from Star'.**

**For your reference, it was shot by director Jang.**

**Upcoming one is the highlight scene.**

(별에서 온 그대 영상)

전지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음 좋겠어?

**So... what do you want then?**

김수현: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

**I never want to see you again.**

전지현: 그런데... 나는 왜 네가... 거짓말하는 거 같지?

**But why do I feel like... you're lying?**

김환: 네, 화려한 영상미의 별에서 온 그대. 잘 봤습니다. 박수 부탁 드릴까요. 별에서 온 그대에 저도 카메오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편집이 됐었죠.

**The scene that we've just saw is from 'Love from Star'.**

**Let's give a big applause.**

**By the way, I had a cameo role in this drama. Sadly, the whole scene was cut.**

장태유: 아 DVD에 넣었어요. 감독판 DVD엔 제가 넣었습니다.

**Oh, I've included the scene in the director's edition DVD.**

**I put your scene in DVD for sure.**

(Time Code 00:47:24)

김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별에서 온 그대를 만들 때, 인기가 이 정도일줄 혹시 아셨습니까?

**I see, thank you. Did you expect this kind of popularity when you were producing My Love from the Star?**

장태유: 아 전혀 몰랐죠. 저희는 어찌됐건 남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평이 좋았지만 중국에서 호응이 엄청나잖아요. 이건 완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No, not at all. We just did our best not to trouble other people.**

**The drama gained a lot of popularity in Korea, and we are getting remarkable results from China too.**

**This is very much unexpected success.**

김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나요?

**What do you think are the strong points it has?**

장태유: 이건 별그대 자체의 강점만은 아닌 거 같고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전반적인 강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미니시리즈들이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제3의 한류다 그러는데, 그 드라마들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여성판타지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신분상승 같은 거죠. 스스로 열심히 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노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멋진 남자를 만나서 신분상승을 한다든지, 두 가지 방향의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는데, 어느 방향이든 간에 멋진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김수현, 이민호, 현빈, 송중기 이런 멋진 남자들이 그런 데에 출연을 하니깐, 아이돌이라고 하죠 일종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볼거리와 재미를 주는 게 아닌가, 또 굉장히 상상력이 우리나라 작가들이 풍부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로코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막 판타지로코가 나오고 있잖아요, 귀신이야기라든지 타임슬립이라든지 외계인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로맨틱코미디와 믹스돼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게 좀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I think it is not only the strength of My Love from the Star but also the strength of Korean dramas.**

**Korean mini series has been gaining popularity recently, which is called the third Korean Wave.**

**The common characteristics is that it satisfies female's fantasy.**

**It shows one way of moving up the social ladder.**

**For example, characters in dramas do their best and gain huge success, or enter a different class through meeting great men.**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Cinderella stories, but we need gorgeous men in either.**

**We do have a lot of gorgeous actors such as Soohyun Kim, Minho Lee, Bin Hyun, and Joongki Song. They are considered idols of a type.**

**So, I think we have many things to offer on different aspects.**

**Also, Korean writers are very imaginative,**

**although writers in general are creative. Romantic Comedy has developed into the new type of drama that goes with ghosts, time slip, or alien stories.**

**I think Romantic Comedy is evolving in very interesting way mixing these kind of new materials with existing ones.**

**It has broken into the market, giving fresh impression to viewers.**

김환:

대니얼대 김씨는 한국드라마를 혹시 보신적 있는지?

**Daniel Dae Kim, have you ever watched Korean dramas?**

대니얼:

Oh, that's a good question. I remember when I was a little boy, one of the first dramas I ever saw

with my parents was 모래시계, 옛날드라마. But I have also seen, of course, Winter Sonata 겨울연가, Samsong, very popular in the US. And I saw 대장금 when I was in New York and I really enjoyed that.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My Love from the Star, everyone's talking about it so I can't wait to see it. And of course, Good Doctor. Good Doctor is unique for us because my company and I enjoyed it so much and it's actually the first Korean drama that we're trying to bring to the US and we are in negotiations right now with CBS to make it into American series.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과 처음으로 본

한국 드라마는 모래시계입니다. 오래 된 드라마이죠

물론 겨울연가와 내 이름은 김삼순도 봤어요. 김삼순은

미국에서 엄청 인기 있었어요. 그리고 뉴욕에 있을 때

대장금을 무척 재밌게 봤었구요. 모두가 이야기 하는

별에서 온 그대도 어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굿닥터는

저희에겐 무척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와 제가

워낙 재미있게 봤고 또 한국드라마로는 첫번째로

미국으로 들여와 미국판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CBS와 협상 중에 있구요

김환:

이제 한국드라마가 아시아권을 넘어 전세계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 3의 한류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작가분들은 앞으로도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더 개발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흐름을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Now, Korean dramas are entering the global market beyond Asia,**

**and some people say the third Korean Wave has arrived.**

**I'd like to ask two writers. What needs to be more developed  
in order to continue this wave?**

**Are there some ways to continue this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Do you have any ideas about this?**

김영현: 그런 질문이 제일 곤란한데요, 뭘 노리고 하는 건 저희는 안 되는 것 같고, 창작자입장에선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스토리개발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제작 측면에서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균일한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정착됐음 좋겠다, 저희가 한 주에 70분짜리 두 개씩 하는 시스템이 정말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법을 좀 다같이 연구했으면 합니다.

**That's a tough question. I think seeking something in particular**

**doesn't help us. From a producer's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evelop stories**

**that can draw sympathy from public. In terms of production,**

**a system that maintains a certain level of quality from**

**the first episode to the last should be settled.**

**Doing two episodes a week, both 70 minutes long is difficult,**

**but it's not easy to improve the production environment.**

**I want to discuss together how we can improve this situation.**

(Time Code 00:51:26)

박상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한류가, 그리고 성공했다는 작품을 봐도 작가들이나 창작자들이 한류를 노리고 한 건 아니란 걸 압니다

**That's a very tough question, because the Korean wave, well,  
the popular K-dramas didn't specifically target international viewers.**

예를 들면 지금 별그대를 보셨지만, 별그대를 쓴 박지은 작가님이 중국에는 치킨과 맥주가 없으니까  
그걸로 한번 중국을 노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쓰지 않았었을 테고요.

**For example, I'm pretty sure that screen writer Park Ji-eun  
did not write 'My Love from the Star' thinking,  
'Oh, the Chinese don't have our chicken-and-beer culture,  
so I'm going to use this in my work to attract some Chinese viewers'.**

그리고 여기 계신 김작가님이 대장금의 어떤 에피소드를 쓰시면서, 야 이걸 아랍용이야, 아랍을 한번  
공략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And screen writer Kim, who is here with us today,  
is very unlikely to have written one of the episodes of 'Dae Jang Geum'  
thinking, 'Yes, the Arabs will absolutely love this.  
I'm going to make this take over the Arabic market'.**

사실 지금의 한류상황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도 작가들도 창작  
자들도 모이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This Korean wave that's going on right now is  
in fact an unexpected phenomenon.  
Even we, the writers and producers of K-dramas,**



**are astonished by this phenomenon.**

그런데 어떤 문화가 이렇게 가능성을 보이면, 그 다음에 산업과 자본이 투여되면서 그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어요

**However, once people realize that a certain part of their culture seems to have some potential to be popularized internationally, then it is immediately followed by capital infusions, clouding the cultural aspects of it.**

항상 그래서 문화가 리드를 하고 산업이 따라와야지, 산업이 먼저 뭔가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점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refore, we think that the cultural part should always take the lead and the industry should come after this.**

**If the industry tries to take the lead and make something out of it by itself, then this could rather hamper its success, so I think this is what we should be cautious about.**

김환:

제작자의 입장에서 한국드라마와 미국 드라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십니까?

**As a producer, what kind of differences do you se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dramas? What is the biggest difference in your opinion?**

대니얼:

Obviously, the biggest difference is the format.

누구나 알다시피 가장 큰 차이점은 드라마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In Korea, you do a series, one series lasts 20~22 episodes depending on their success.

In America, we generally go for a multi-season series that goes as long as the audience wants to watch it.

한국에서는 하나의 시리즈로 드라마를 만드는데

한 시리즈당 드라마의 인기 여부에 따라

보통 20개에서 22개까지의 에피소드가 만들어져요

반면 미국에서는 여러 개의 시즌으로 된 시리즈로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그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는 한

계속 만들어요

That said, I feel like, now in America, things are changing with the emergence of cable and shows are starting to change their models.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요즘 미국에서는

케이블 TV의 등장으로

드라마들의 형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They are starting to go less from 20 episodes and some shows are doing 13 episodes, some shows are doing 8 episodes, and some shows are becoming limited series, and that's exactly like the Korean model.

요즘 미국 드라마들은 20개의 에피소드 이하로 제작이 되고

어떤 드라마는 13개의 에피소드만 방영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8개의 에피소드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드라마는 리미티드 시리즈로 만들어 지기도 하는데

이런 형식은 한국 드라마와 똑같죠

So there's a lot of similarity happening so I think it's a really good time to start bringing Korean dramas to the US and it's a good time to bring American dramas to Korea.

이처럼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 간에

공통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지금이 한국 드라마를 미국으로 들여오고

또 미국 드라마를 한국으로 들여오기에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김환:

한국 드라마만큼이나 미국 드라마도 이제 우리 한국시장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Like K-dramas, American TV shows are receiving great feedback from the Korean market and a great number of Korean viewers are watching them.**

요즘 미국에서는 또 리메이크가 계속해서 유행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I also heard that remaking dramas is popular in the US these days, is that true?**

대니얼:

Yes, I think in the American industry, people are looking to reduce their risk.

네 제 생각에 미국인들은 감수해야 할 위험을 줄이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If there's a big hit series like My Love from the Star or a book that you can base your story on, or the life writes to a real person, studios and networks are more likely to say 'yes', because they know

that something is successful.

만일 '별에서 온 그대'처럼

엄청나게 히트를 친 드라마를 리메이크 하자고 하거나

이미 출판된 인기 있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실제 사람의 생애를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자고 제안한다면

미국의 스튜디오나 방송사에서는 그러자고 할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One of the reasons they were bringing 'Good Doctor' to the US is because it's a very familiar format. Every US network has a medical drama.

'굿 닥터'를 미국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미국 방송사에서는 의학 관련 드라마를

꼭 한 개쯤은 만들거든요

You know, if you remember back to ER, or Chicago Hope, or even House most recently, the medical drama is a very tried and true formula in America.

아시잖아요, 'ER'에서부터 '시카고 메디컬' 아니면

가장 최근 드라마인 '하우스'처럼 의학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 형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So what's great about that is that we can take a Korean format, and focus more on character and a

flawed star that we can empathize with the entire journey and we can suddenly change the model a little bit, one step at a time.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의 형식을 가져와서

등장 인물의 캐릭터를 좀 더 실제화 시키는 거예요

꼭 완벽하지만은 않은 등장 인물이

드라마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드라마 형식을 조금씩 바꿀 수 있죠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Time Code 00:55:00)